

체험특별전 해설지

학부모용

이 천 이 라
친 해 지 기

1

체험을 통해 배우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인천이랑 친해지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는 체험을 통해 배우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특별전 『**인천이랑 친해지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체험특별전은 진열장에 유물을 나열하는 기존의 전시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체험과 놀이**라는 매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온 가족이 함께 놀이하며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는 인천의 **지리와 환경**, 인천의 **역사**, 인천의 **문화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학년별 수준에 맞춘 체험활동지의 미션을 해결하면서 각각의 교구들을 체험한다면,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전시 관람을 위한 가이드

- 첫째,** 전시실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 둘째,** 놀이하듯이 패널과 교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습보다는 '체험'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전시물을 아는 것보다는 작은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셋째,** <인천이랑 친해지기>는 엄숙하고 딱딱한 전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교구들을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 넷째,** 전시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린이와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 다섯째,** 여러 관람객과 함께 관람할 경우 타인을 배려하며 질서를 지켜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른들의 작은 행동이 아이들의 전시관람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여섯째,** 전시관람 모습을 사진에 담아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귀가 후 활동지나 리플렛을 다시 꺼내 보면서 전시관람 후 느낀 점을 상기시켜 주세요.





인천의 지리와 환경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인천에는 강화도, 영종도, 백령도 등 섬이 많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 갯벌이 발달했습니다. 이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하고, 새로 땅을 매워 집과 공장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천의 바다는 이로운 점도 많지만 큰 배가 정박하기는 어려워 갑문을 설치하여 국제적인 항구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종도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동북아시아 교통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인천의 산줄기는 소래산에서 문학산으로 이어지는 동서산지와 계양산에서 주안산(만월산)까지 이어지는 남북산지가 중심축을 이룹니다. 이 산줄기는 도시의 열기를 식혀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나누는 역할도 합니다. 두 산줄기가 만나 이룬 S라인이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을 나누어 주고 있고, 다시 계양산 줄기가 부평구와 서구를 나누고, 문학산 줄기가 남구와 연수구를 나누어 줍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으로, 1995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섬의 중앙으로 별림산, 고려산, 마니산의 산줄기가 자리잡고 있고, 바다를 마주보는 넓은 갯벌과 갯벌을 매워서 만든 평야가 있습니다. 넓은 갯벌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그 갯벌을 매워 농사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 고인돌과 같은 선사시대의 유적이 많습니다. 또, 바다는 아침 저녁으로 바닷물의 깊이가 달라지고, 물살도 거세서 배를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입해오자 강화도는 임시수도가 되어 38년간이나 맞서 싸웠고 조선시대에도 국방 요충지로 중요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화도에는 과거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지붕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TIP

아이와 함께 패널의 지도를 보면서 우선 인천 땅의 형태와 바다, 산줄기 등 전체적인 지리적 특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한 특징들이 인천의 환경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순차적으로 질문하며 인천의 지리와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천바다 미로 체험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천의 해안에는 자갈, 모래, 갯벌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로의 자갈길을 거쳐 모래사장을 지나면 1903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 등대가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15.7km 떨어진 작은 섬, 팔미도에 우뚝 솟아 있는 등대는 인천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에서 인천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지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이 등대를 탈환해 불을 밝힘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등대의 불을 켜보고 갯벌의 진흙을 밟고 나오면서 인천바다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TIP

이 미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천바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팔미도 등대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갈, 모래, 흙의 질감을 직접 피부로 느껴볼 수 있도록 신을 벗고 미로를 통과하게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로 안쪽 팔미도 등대의 스위치를 켜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천 지명의 변화

인천의 지명은 시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TIP

시대에 따라 변화된 인천의 이름을 교구상자에서 찾아 차례대로 걸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연표의 그려진 모양을 찾아 걸면 보다 쉽게 해답을 알 수 있으나 걸기 전 인천의 이름을 확인하며 걸게 해주시고, 완성되면 한번 더 지명의 변화를 짚 살피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선사시대 영종도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신석기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많은 섬들 중 하나입니다. 영종도 일대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유적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많은 신석기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덕자리, 집터, 돌무지, 움집 등 여러 흔적이 남아 있으며, 토기, 돌화살촉, 반달돌칼, 그물추, 돌도끼, 솥돌, 갈돌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선사시대 영종도의 삶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TIP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땅 아래에는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손잡이를 잡고 뚜껑을 열어 땅 아래 묻혀있는 선사시대의 유물들을 확인하면서 그 도구의 쓰임새를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땅 위의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선사시대 영종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청동기 고인돌 세우기

청동기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금속으로 만든 도구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대입니다. 인천의 여러 곳에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화도의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인돌을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고인돌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고인돌 두개를 세운 후 흙을 쌓아 안전한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사면에 통나무를 올려놓고 덮개돌을 받침돌 위로 끌어 올린 후 흙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은 힘으로 무거운 고인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TIP

고인돌 세우기 교구를 체험하기 전에 어떻게 무거운 고인돌을 적은 힘으로 세울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해주세요. 비치된 고인돌은 아이 혼자 세우기에는 무거울 수 있으니 부모님이 곁에서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인천의 탄생, 백제 비류 설화

미추홀 인천에 나라를 세운 백제 비류 설화를 통해 인천의 탄생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TIP

인천의 탄생 설화로 알려진 백제 비류 설화를 비치된 책을 통해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약 20페이지 분량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아이들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고려시대 목판 및 금속활자 체험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적어 생각과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돌, 금속에 새기거나 나무, 종이에 손으로 직접 적다가, 점차 목판과 활자를 만들어 책으로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목판 : 목판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찍어내고 손으로 베껴 쓸 때 일어날 수 있는 실수나 글자 변화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대표적인 목판인쇄물로 강화도 선원사에서 옮겨간 것입니다.

금속활자 :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 조립해서 찍어내는 인쇄방법입니다. 목판의 경우 시간이 지나고 인쇄횟수가 많아지면 나무판이 닳거나 글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쉽고 똑같은 책만 인쇄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리, 쇠와 같은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본입니다.

TIP

팔만대장경 목판과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를 통해 두 인쇄방식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직지심체요절은 패널의 예시를 보고 활자를 직접 채워볼 수 있도록 하여 활자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iii 조선시대 부평 어사대 활쏘기

부평초등학교 교정에는 어사대와 육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조 임금이 부평에 들렀을 때 잠시 머물며 활을 쏘고 손을 씻은 곳으로 전해집니다. 어사대 후면에 정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지고, 고종 24년(1887)에 중수하였다는 어사대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국궁은 양궁과는 달리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화살을 당기며 과녁의 활을 맞추는 위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지 않는 등 양궁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TIP

활을 쏘기 전에 전시장에 비치된 활의 모습과 과녁의 모습을 잘 관찰하여 양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게 하세요. 활을 쏠 때에는 화살은 활의 오른쪽에 놓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어깨까지 힘껏 당겨 쏠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iii 강화의 군사시설

강화도는 주변의 물길이 거세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넓은 갯벌이 발달하여 외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라에 큰 난리가 났을 때 임금님과 신하들이 피난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다른 나라의 공격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운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강화도에는 성들과 봉수대, 돈대 등과 같이 나라를 지키는 유적이 97개나 모여 있습니다.

봉수대 : 산꼭대기에서 불과 연기를 피워 번두리에서 일어난 큰 난리나 다른 나라의 공격을 서울로 알릴 수 있었던 시설입니다.

성 : 외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중요한 시설이나 해안가에 길게 쌓은 군사시설입니다.

돈대 : 해안가의 작은 언덕 위에 돌을 이용하여 둥글게 또는 사각형으로 쌓아올린 방어시설입니다. 강화도에는 54개의 돈대가 있었습니다.

TIP

우선 강화도가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던 지리상의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패널의 강화도 지도 해안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구상자의 군사시설을 선택하여 아이들이 직접 배치하게 하세요. 군사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준다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항의 배 밧줄 묶기

옛날 인천은 항구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제물포 등 인천의 여러 포구로 많은 배들이 드나 들었습니다. 정박한 배의 밧줄을 묶는 방법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고매듭

쉽게 묶을 수 있으며 끈의 한쪽만 잡아당기면 쉽게 풀어져 배가 짧은 시간 정박할 때 사용합니다.



두매듭

기둥에 밧줄을 걸거나 묶을 때 쉽게 맺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감은매듭

매듭이 단단해서 배를 묶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TIP

밧줄 묶기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널의 밧줄 묶기 예시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돌려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며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흥예문 쌓기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중구 송학동 응봉산 남쪽에 아치형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터널이 마치 무지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흥예문(虹霓門)이라고 불렸습니다. 부둣가에 자리를 잡았던 일본인 거주지역은 청일전쟁 이후 만석동, 송월동, 전동 일대로 팽창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본조계까지 왕래하려면 응봉산을 넘어가거나 싸리고개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남북 교통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흥예문입니다. 흥예문은 양쪽에서 돌을 쌓고 가운데 돌을 마지막으로 쌓아 힘이 양쪽으로 분산되는 아치의 원리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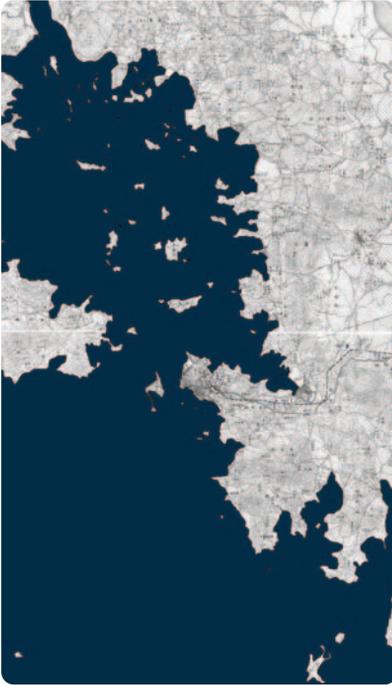
TIP

아치의 원리를 알려주면서 흥예문의 아치를 교구를 통해 직접 쌓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치의 힘이 분산될 수 있도록 양쪽을 먼저 쌓고 점차 가운데쪽으로 쌓아야 무너지지 않게 쌓을 수 있습니다. 아치를 쌓은 뒤 흥예문을 통과하여 고개를 넘지 않고도 인천의 남북을 손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점을 설명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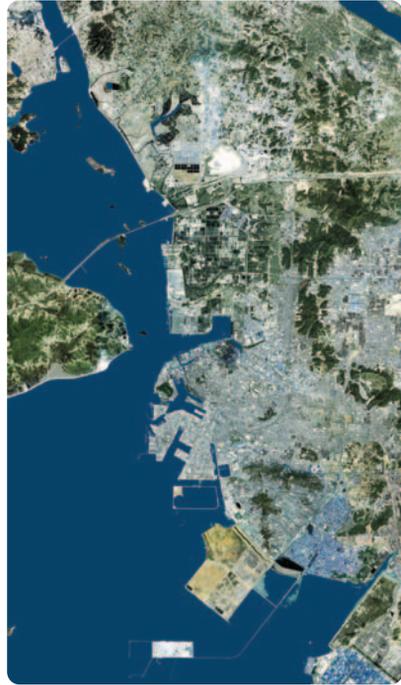
iii 현재·과거 인천 지도 비교하기

축척이 같은 1911년 인천지도와 현재 인천 위성지도입니다.

인천은 간척 사업을 통해 해안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도시 개발로 도시의 구조도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지도와 현재지도가 겹쳐지도록 밀어보면 두 지도 사이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911년 지도〉



〈현재 지도〉

TIP

과거 지도와 현재지도를 나란히 보여주며 두 지도의 차이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 지도가 겹쳐지도록 밀어본 후 인천이 약 10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해주세요. 해안선, 도로 등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문화재 분포도

인천에는 다양한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인천 문화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 문화재 현황〉

	종구	동구	남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무형문화재	계
국가 지정	1	-	-	2	-	14	1	-	28	6	5	57
시도 지정	15	6	9	5	6	13	1	9	73	-	16	153

참고 국가지정문화재 종류 :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시도지정문화재 종류 :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인천 문화재 스크래치

강화고인돌 :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강화에는 15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도의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적 137호로 지정된 부근리 고인돌은 전형적인 탁자식으로 덮개돌의 크기가 6.5m이며 무게가 52톤이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건칠여래좌상 : 건칠(乾漆)이란 진흙 등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종이나 삼베 등을 계속 붙여 말린 다음 속을 파내고, 마지막으로 옷칠을 하여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이 여래상은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담동성당 : 인천 중구에 위치한 담동성당은 1890년대에 세워진 서양식 근대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사적 287호로 지정된 담동성당은 벽돌을 주재료로 하였고, 중앙과 양쪽의 탑상부에는 끝이 뾰족한 돔을 얹어 아름다운 외관을 보여줍니다.

TIP

인천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패널에 소개된 다양한 문화재를 우선 꼼꼼히 살펴보세요. 눈으로 본 문화재를 손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스크래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예로 써보는 인천

- 전서(篆書)**: 전국시대~진(秦)나라 때에 많이 쓰인 서체로 한자의 서체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사물의 형태를 본떠서 만든 글씨가 많습니다.
- 예서(隸書)**: 전서의 자획을 간략화하여 한(漢)나라 때 많이 쓴 서체로 전서에 예속하는 서체라는 뜻입니다. 글자의 모양이 가로로 길고 네모난 것이 특징입니다.
- 해서(楷書)**: 한자의 기본 서체로서 정서(正書) 혹은 진서(眞書)라고도 합니다. 예서에 비해 다소 세로로 길며 형태가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행서(行書)**: 해서와 초서의 중간 형태로서 붓끝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자연스럽게 쓴 것이 특징입니다.
- 초서(草書)**: 획을 간략화하여 빠르게 흘려 쓴 서체로 서예의 미술적 요소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TIP

한자의 다양한 서체의 이름이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한자가 전서에서 초서까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각 서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메시지로 완성하는 인천지도

TIP

자~ 이제 전시실 관람이 끝났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본 후 느낀점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인천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적어 패널의 지도위에 함께 붙여주세요.

체험형 인형극 배우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 TEL : (032)440-6750 <http://museum.incheon.go.kr>